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지원정책 및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권명규*, 양해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융합공학과 박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Entrepreneu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the fusion of industries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Myung-Kyu Kwon*, Hae-Sool Yang**

Dept. of Fusion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자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 정신의 영향력을 실증분석하고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 정신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창업자의 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탐구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 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3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0 통계패키지에 의한 단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연구결과, 융복합산업분야에서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과 마케팅지원은 기업가 정신의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금지원은 기업가 정신의 진취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논의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융복합산업분야, 창업지원정책,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사업실패부담감, 자기효능감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the entrepreneurship which can affect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to prov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business failure burden and the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ntrepreneurship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the empirical study in the fusion of industries. We used data from 321 survey participants by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excluding dishonest respondents,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18.0 statistic package. We used hierarchical regression technique to prove our hypothesis. The results showed that education and marketing support which are part of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in the fusion of industri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 acceptability which are part of entrepreneurship. It has been reported that only funding support has positive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pro-activeness.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will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ut business failure burden and self-efficacy will have no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and the entrepreneurship.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presented.

Key Words : Fusion of industries,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Business failure burden, Self-efficacy

Received 9 March 2016, Revised 18 April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Hae-Sool Yang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Email: hsya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가 지속되고 저출산·고령화의 급이 점점 확산되면서 정부는 실업을 해소와 저성장 경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주요 창업지원정책은 기업가 정신의 함양을 위한 창업교육, 금전적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자금지원정책, 판로개척 등 마케팅지원 정책이 해당된다[1]. 그러나 현재까지의 창업지원정책 추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업성공률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F. Lafontaine & K. Show(2014)의 연속적 창업(Serial Entrepreneurship)이론에서 1차 창업성공률은 29%이며, 2차 창업성공률은 35%이며, 3차 창업성공률은 40%이며, 4차 창업성공률은 46%이며, 5차 창업성공률은 53%가 된다고 하였다[2]. 이는 창업의 성패를 결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실패를 통한 경험은 차후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재도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져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은 1년 미만의 단기성 교육 등 단기지원정책이 대부분이며, 시제품개발 단계에서의 자금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기에 창업자의 실패를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재도전을 격려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3]. Timmons(1994)가 창업에 관한 지식, 전문적인 교육과 함께 창업의지와 혁신적인 태도를 강조했던 것을 고려할 때[4],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이로 인한 창업의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F. Lafontaine & K. Show(2014)의 연속적 창업이론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기업가들이 창업의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심리적 작용을 이해하여 이를 대비하는 대안적 노력이 필요하다[2].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융복합산업 분야에서 창업준비 단계의 창업자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켜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실패의 두려움에 직면한 창업자들의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을 정부정책적 개입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창업교육을 한번

이라도 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사업실패부담감과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자기효능감이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 상 기업가정신의 범위를 좁혀 '창업이전 단계의 창업준비자 및 기창업자 대상의 기업가정신'으로 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범위도 창업이전 단계에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으로 한정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창업지원정책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창업지원정책의 분류와 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영향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Gartner & Vesper (1994)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로 창업자의 잠재능력 특성의 발현, 전문가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창업을 위한 준비공간 및 자금지원 등을 주목하였다[5]. 김순태 (2013)는 정부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지원, 자금지원, 컨설팅지원 등을 주목하면서 이중 컨설팅지원이 영입차별화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 이러한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창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창업지원정책은 크게 교육, 자금, 마케팅 분야의 지원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중 교육지원정책과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기업가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되어 왔다[6].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제 창업교육프로그램은 전문성이 낮으며 강의방식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 창업준비자를 양성하기에는 미흡한 편이다[7].

자금지원정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사관학교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이 대표적이며, 이는 크게 지원자금, 출연자금, 융자자금, 벤처자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8]. 이와 관련, 김영순(2008)은 자금조달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9], 전봉준(2012)은 정부의 창업지원자금이 초기창업의 안정과 성공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10].

사업아이디어도출, 판로개척 등과 관련된 마케팅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Gartner & Vesper(1994)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의 도출 등 마케팅적 요인들을 주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5]. 박봉삼(2007)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에서 창업 자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점포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1].

이상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교육 정책, 자금 정책, 마케팅 정책의 3가지가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주요한 환경요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융복합 산업분야에서의 창업지원정책은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으로 정의한다. 여기서의 교육지원정책은 창업자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자금지원정책은 정부의 지원자금 및 출연자금, 융자자금 및 투자자금을 의미하며, 마케팅지원은 성공적 창업을 위해 창업과정 전반에 걸쳐서 제공하는 정부의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2.2 기업가정신

Schumpeter(1934)가 처음으로 기업가정신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에 도입한 이래 기업가정신을 개념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Miller (1983)는 기업가정신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혁신성(innovation), 진취성(pro-activeness), 그리고 위험감수성(risk-taking)과 같이 세 가지 차원을 강조하였다[12]. 기업가정신도 이러한 기업가정신과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었는데, Morris & Lewis (1995)는 기업가정신의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기업가의 사고와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혁신적, 진취적, 위험감수적 사고방식의 3가지를 중시하였다[13].

Schumpeter(1934)는 혁신성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면서, 일상적 활동에서 벗어나서 모든 인적·물적 요소를 새롭게 결합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정의하였다[14]. Drucker(1985)는 혁신성을 기업가가 기존에는 없던 상품과 서비스 등 새롭고 이질적이며 유용한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15].

진취성과 관련, Miller (1983)는 진취성을 기업가의 미래지향적인 성향으로 규정하면서, 경쟁자들보다 빨리 시

장변화에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라고 하였다[12]. 즉, 진취성은 혁신성에 비해 경쟁업체에 대한 도전과 적극적인 성과창출의지가 강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감수성은 기업가정신의 요소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16]. Covin & Slevin(1990)은 위험감수성이 프로젝트의 높은 위험성을 선호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하였으며[17], Dess & Lumpkin(2005)는 성공에 대한 결과의 불확실성에도 과감하게 실행하는 경향이라고 하였다[18].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 산업분야에서의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준비된 창업자의 역량’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의 구성요소는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3가지로 구분하였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개념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과 창업지원정책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이미 창업한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 먼저, 교육지원정책 측면의 선행연구로 Blanchflower(2004)는 대학졸업 후 교육프로그램이 하이테크 기업의 창업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9], 윤백중(2011)은 특히, 창업교육 중 창업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20].

자금지원정책의 측면에서 전대열(2011)은 R&D분야의 자금지원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21], 전봉준(2012)은 정부의 창업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받지 못한 기업 대비 경영성과에 있어 긍정적인 개선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하였다[10].

마케팅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박봉삼 (2007)은 창업 준비단계에서 소상공인의 성과를 위해 창업자특성, 사업아이템 선정, 점포특성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여 마케팅지원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융복합 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자금, 마케팅 정책이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존에 창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3 창업의지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는 잠재적 기업가가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22]. Krueger(2000)는 창업의지 개념을 통해서 창업실행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23], 박시사·강성일(2007)은 창업의지가 없으면 기업이 설립될 수 없으며 창업행위도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24]. 조규호(2013)도 강한 창업의지가 있으면 상황적 여건을 이겨내는 창업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5].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연구목적에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융복합 기업의 창업의지는 ‘창업준비자가 미래에 창업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일관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창업의지의 결정 요인으로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rueger(1993)는 성취욕구와 창업, 창업의지 간에는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26], 윤백중(2011)은 기업가정신 중에서 혁신성과 진취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0]. 강영욱(2013)도 혁신추구성과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이상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등의 창업정신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창업하여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방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창업이전 단계에서 창업준비자들의 기업가정신이 창업을 위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고 있지 않다.

2.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요소는 자신감이다. 이와 관련 Bandura(1986)는 자기효능감은 이미 확보된 고정된 능력이 아니며 개인이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조직화하여 실행하는 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고 하였으며[28], 황수연(2007)은 애매모호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을 얼마나 잘 조직화하고 이행할 수 있는 지에 대

한 판단과 그에 따른 신념이라고 하였다[29].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융복합산업 기업 창업자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창업준비자의 창업을 위한 자기 스스로의 자신감이 충분한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기존의 이론들을 고찰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와 창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지만 조절변수로서의 역할도 가능함을 도출할 수 있었다. Ensley(2000)는 자기효능감은 자신감을 의미하며, 이는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30], 박시사·강성일(2007)은 심리적 특성요인 중에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24]. 한편, 정종식(2012)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에 대한 자신감에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31]. 이는 자기효능감이 창업교육과 상호작용을 하며 기업가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임순영(2012)은 자기효능감이 성취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주어진 상황이나 과제 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약한 자기효능감은 쉽게 소거될 수 있다고 하였다[32].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융복합산업에서의 창업지원정책은 환경요인으로서 자기효능감과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기업가정신을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융복합산업기업 창업준비자 대상의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2.5 사업실패부담감

F. Lafontaine & K. Show(2014)은 연속적 창업(Serial Entrepreneurship)이론을 주창하면서 다수의 창업과 실패경험의 반복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역으로 창업성공에 이르기 까지 다수의 실패경험과 이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Redding(1993)은 창업성공에 따른 신분상승(prestige)과 실패에 따른 체면손상(shame)이 창업결정을 하게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33], 오상훈(2013)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위신 등을 이유로 실패부담감으로 인해 작업 창업활동도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34].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연구목적에 고려할 때 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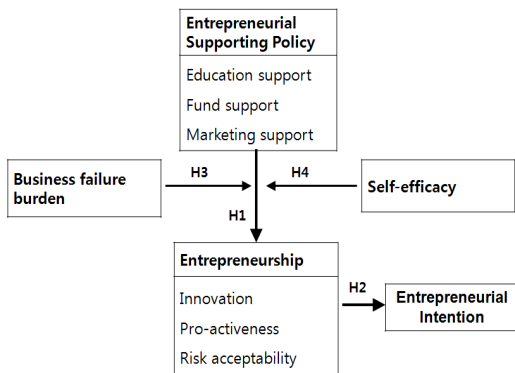
구에서는 융복합산업 기업 창업시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준비자의 창업을 위한 자신에 대한 자신감 결여의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업실패부담감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성장수(2011)는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도는 다소 높아지지만 현실적인 창업실행의 어려움에 직면할 시에는 사업실패부담감 때문에 창업의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냈다[35]. 오상훈(2013)도 창업실패 후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창업실패 후유증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34]. 이는 사업실패부담감이 교육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정책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융복합산업에서의 창업시 사업실패부담감은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서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특히,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관계에 있어 사업실패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을 조절변수로서 연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3.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융복합산업 기업 창업시 창업준비자 대상의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 등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구성된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서 작용 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다음 [Fig. 1]의 연구모형으로 정리된다.

3.2 연구가설 설정

제시한 연구모형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 교육지원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 자금지원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 마케팅지원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 교육지원은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자금지원은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 마케팅지원은 진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 교육지원은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 자금지원은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 마케팅지원은 위험감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 혁신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2 : 진취성에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3 : 위험감수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5-1 : 사업실패부담감은 교육지원과 혁신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5-2 : 사업실패부담감은 자금지원과 혁신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5-3 : 사업실패부담감은 마케팅지원과 혁신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6-1 : 사업실패부담감은 교육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6-2 : 사업실패부담감은 자금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6-3 : 사업실패부담감은 마케팅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7-1 : 사업실패부담감은 교육지원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7-2 : 사업실패부담감은 자금지원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7-3 : 사업실패부담감은 마케팅지원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자기효능감은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8-1 : 자기효능감은 교육지원과 혁신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8-2 : 자기효능감은 자금지원과 혁신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8-3 : 자기효능감은 마케팅지원과 혁신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9-1 : 자기효능감은 교육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9-2 : 자기효능감은 자금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9-3 : 자기효능감은 마케팅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10-1 : 자기효능감은 교육지원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10-2 : 자기효능감은 자금지원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10-3 : 자기효능감은 마케팅지원과 위험감수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개의 측정기준을 바탕으로 총 5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구성 및 출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rvey Structure and Source

Classification	Variables	N	Source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ducation Support	4	Clark et al(1984)
	Fund Support	1	Clark et al(1984)
		1	Yoon, Bang Sub (2004)
		1	Lee, In Jae(2006)
	Marketing Support	1	Vaeley(1986)
		1	Lee, In Jae(2006)
		1	Clark et al(1984)
Entrepreneurship	Innovativeness	2	Vaeley(1986)
		3	Miller(1983)
		2	Cho, Byung Geun(2013)
	Pro-activeness	6	Gartner(1985)
Risk Acceptability	3	Gartner(1985)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Intention	2	Ajzen(1982)
		1	Ajzen(1991,2001)
Business Failure Burden	Business Failure Burden	2	Davidsson and Jonkoping(1995)
		6	Shapero and Sokol(1982)
Self-efficacy	Self-efficacy	6	Ralf Schwarzer & Matthisa Jerusalem(1994)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Gender, Age, Education, Marital status, Salary, Job Experience, Starting Business Career(Self),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 Mentor/Network	9	Crant(1996)
		3	Park, Nam Kyu(2014)

3.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접한 융복합산업분야 창업준비

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 전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50부의 예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설문지 문항을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3주간 진행하였다. 조사방법은 미창업자 및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블로그, 이메일,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등 온라인을 통해 346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중 입력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31명의 응답을 최종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과 가설검정을 위한 통계처리방법은 SPSS Win Ver.18.0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차례로 실시하였다. 12개 인구통계학적변수를 통제변수로 전환하기 위해 연령, 학력, 월소득의 3변수는 연속변수로, 나머지 9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한 뒤에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총 33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결과는 <Table 2>과 같다.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n=331)

Variables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241	72.8
	Female	90	27.2
Age	20~29	137	41.4
	30~39	36	10.9
	40~49	84	25.4
	Over 50	74	22.4
	High School	103	31.1
Education	College or University	125	37.8
	Graduate	103	31.1
	Married	175	52.9
Marital status	Not married	156	47.1
	Salary/ Month	< ₩ 200M	54
₩ 200M - 300M		57	17.2
₩ 300M - 400M		69	20.8
₩ 400M - 500M		56	16.9
> ₩ 500M		95	28.7
Job Experience	Yes	205	61.9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	No	126	38.1
	Yes	123	37.2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	No	208	62.8
	Yes	137	41.4
Mentor/ Network support	No	194	58.6
	Yes	190	57.4
Network support	No	141	42.6

둘째, 측정된 변수들의 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는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가설검증을 위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가설들의 검증을 위한 자료분석 방법으로 단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융복합산업분야 창업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3.4.1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측정도구가 특정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과 직각회전방법인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였다. 요인추출은 고유값(eigen value) 1.0, 요인적재량은 .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먼저 외생변수들인 정부지원정책(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과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총 24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모두 .5 이상의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여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단, 자금지원 4번 문항은 해당요인에 적재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내생변수들인 기업가정신(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및 창업의지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총 19개의 문항을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모두 .5 이상의 높은 요인적재량을 보여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단, 혁신성 3번 문항과 창업의지 3번 문항은 해당요인에 적재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results I

Item	Component				
	1	2	3	4	5
ES 1	0.082	0.223	0.738	0.221	-0.105
ES 2	-0.008	0.088	0.820	0.196	0.152
ES 3	-0.001	0.032	0.800	0.195	0.156
ES 4	0.059	0.092	0.749	0.212	0.302
FS 1	0.135	0.145	0.250	0.741	0.000

FS 2	0.118	0.101	0.178	0.800	0.097
FS 3	0.083	0.094	0.152	0.775	0.178
FS 4	0.033	0.114	0.045	0.020	0.561
MS 1	0.069	0.083	0.349	0.368	0.563
MS 2	0.061	0.060	0.397	0.397	0.521
MS 3	-0.034	0.188	0.187	0.233	0.763
MS 4	0.006	0.137	0.153	0.194	0.790
BFB 1	0.692	0.028	0.054	0.076	-0.069
BFB 2	0.848	0.004	-0.002	0.145	-0.059
BFB 3	0.884	0.024	0.062	0.077	-0.031
BFB 4	0.883	0.026	0.054	0.103	-0.033
BFB 5	0.799	-0.006	-0.027	0.048	0.092
BFB 6	0.741	-0.112	0.007	-0.044	0.180
SE 1	-0.011	0.680	0.066	0.225	0.004
SE 2	0.024	0.810	0.093	0.111	0.006
SE 3	-0.050	0.770	0.044	-0.038	0.129
SE 4	0.032	0.786	0.152	-0.032	0.101
SE 5	0.025	0.802	-0.001	0.094	0.217
SE 6	-0.052	0.815	0.092	0.117	0.128
Eigen Value	6.310	4.013	2.789	1.398	1.194
% of Variance	26.294	16.723	11.619	5.825	4.975
Cumulativ%	26.294	43.016	54.635	60.460	65.436

* ES: Education Support
 * FS: Fund Support
 * MS: Marketing Support
 * BFB: Business Failure Burden
 * SE: Self-efficacy

<Table 4> Factor analysis results II

Item	Component			
	1	2	3	4
IV 1	0.184	0.295	0.157	0.577
IV 2	0.034	0.309	0.038	0.627
IV 3	0.763	0.061	-0.233	0.177
IV 4	-0.036	0.058	0.282	0.645
IV 5	-0.072	0.075	0.176	0.671
PA 1	0.258	0.239	0.627	0.004
PA 2	0.241	0.137	0.653	-0.065
PA 3	0.134	0.163	0.579	-0.010
PA 4	0.314	0.286	0.661	0.038
PA 5	0.260	0.151	0.793	0.000
PA 6	0.234	0.099	0.799	-0.040
RA 1	0.679	0.174	-0.045	0.102
RA 2	0.672	0.242	0.166	-0.026
RA 3	0.657	0.180	0.194	0.030
EI 1	0.325	0.810	0.146	0.034
EI 2	0.254	0.863	0.108	-0.078
EI 3	-0.144	-0.165	0.214	0.752
EI 4	0.227	0.868	0.110	-0.097
EI 5	0.200	0.810	0.195	0.006
Eigen Value	7.111	1.790	1.399	1.154
% of Variance	37.429	9.420	7.364	6.074
Cumulative %	37.429	46.849	54.213	60.287

* IV: Innovativeness
 * PA: Pro-activeness
 * RA: Risk Acceptability
 * EI: Entrepreneurial Intention

3.4.2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

유사한 측정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 도구로 측정을 반복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인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인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값을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신뢰도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한다.

<Table 5>에 신뢰도 계수와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변수의 크론바흐 알파값이 .70 이상으로 나와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and descriptives

Variable	# of items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ES	4	4.188	0.688	.845
FS	3	4.266	0.689	.790
MS	4	3.900	0.710	.797
BFB	6	3.872	0.818	.893
SE	6	3.812	0.626	.880
IV	4	3.777	0.668	.741
PA	6	3.935	0.568	.792
RA	3	3.696	0.737	.748
EI	4	3.700	0.953	.913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어느 정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거의 모든 변수들은 정적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나 사업실패부담감은 기업가정신 변수인 진취성과만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Table 6> Variable correlations

	ES	FS	MS	BFB	SE	IV	PA	RA
ES								
FS	.499**							
MS	.556**	.563**						
BFB	0.088	.212**	0.094					
SE	.257**	.253**	.315**	-0.003				
IV	.352**	.304**	.349**	0.036	.547**			
PA	.369**	.336**	.350**	.159**	.550**	.700**		
RA	.316**	.270**	.386**	-0.071	.628**	.626**	.606**	
EI	.321**	.300**	.330**	-0.090	.381**	.497**	.529**	.468**

* p<.05, ** p<.01

4.2 가설의 검증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의 정부지원정책 변수들이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기업가정신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로 12개 통제변수들을 회귀하였으며, 2단계로

교육지원, 자금지원, 마케팅지원의 세 변수를 추가하여 회귀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7>에서 <Table 9>까지에 제시하였다.

<Table 7>에서 3개의 정부지원정책 변수가 .01 유의수준에서 혁신성 변이의 17.7%를 추가 설명하고 있다.

<Table 7>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I (for 'Innovativeness')

Item	Step1			Step2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058	1.034	0.151	0.061	1.220	0.112
Age	-0.073	-0.641	0.261	-0.127	-1.193	0.126
Education	-0.002	-0.029	0.488	0.045	0.643	0.260
Marital status 2)	0.052	0.529	0.298	0.102	1.146	0.253
Salary/Month	0.051	0.861	0.195	0.030	0.570	0.283
Job Experience 3)	0.026	0.358	0.360	0.049	0.738	0.240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170*	1.934	0.027	0.124	1.542	0.62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89	-1.529	0.063	-0.098*	-1.866	0.032
Mentor/Network support6)	0.039	0.655	0.256	-0.011	-0.200	0.421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086	1.460	0.072	0.054	1.013	0.156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141*	1.753	0.040	0.209**	2.876	0.002
Last Major Studied in9)	0.113*	1.786	0.037	0.153**	2.681	0.004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S				0.244**	3.959	0.000
FS				0.085	1.386	0.083
MS				0.180**	2.757	0.003
ΔR2				.177**	F(3, 315)=26.321, p=0.000	
R2	.117**, F(12, 318)=3.524, p=0.000			.294**	F(15, 315)=8.757, p=0.000	

* p<.05, ** p<.01

<Table 8>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II (for 'Pro-activeness')

Item	Step1			Step2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105*	1.849	0.033	0.110*	2.159	0.016
Age	-0.214*	-1.843	0.033	-0.288**	-2.674	0.004
Education	0.054	0.679	0.249	0.096	1.341	0.090
Marital status 2)	-0.009	-0.094	0.463	0.051	0.562	0.287
Salary/Month	0.025	0.412	0.340	0.007	0.126	0.449
Job Experience 3)	0.034	0.454	0.325	0.062	0.910	0.181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188*	2.102	0.018	0.148*	1.824	0.034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82	-1.389	0.083	-0.087	-1.630	0.052
Mentor/Network support6)	-0.037	-0.610	0.271	-0.091*	-1.649	0.050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182**	3.020	0.001	0.145**	2.658	0.004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053	0.656	0.256	0.122*	1.655	0.049
Last Major Studied in9)	-0.071	-1.107	0.134	-0.034	-0.585	0.279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S				0.273**	4.379	0.000
FS				0.122*	1.968	0.025
MS				0.124*	1.882	0.030
ΔR2				.184**	F(3, 315)=26.634, p=0.000	
R2	.089**, F(12, 318)=2.586, p=.003			.273**	F(15, 315)=7.896, p=0.000	

* p<.05, ** p<.01

이중 교육지원($\beta=.244, p<.01$), 마케팅지원($\beta=.180, p<.01$) 이 혁신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8>에서 3개의 정부지원정책 변수가 .01 유의 수준에서 진취성 변이의 18.4%를 추가 설명하고 있다. 교육지원($\beta=.273, p<.01$), 자금지원($\beta=.122, p<.05$), 마케팅

지원($\beta=.124, p<.05$)의 세 변수 모두 진취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Table 9>에서 3개의 정부지원정책 변수가 .01 유의 수준에서 위험감수성 변이의 15.8%를 추가 설명하고 있다. 교육지원($\beta=.185, p<.01$), 마케팅지원($\beta=.224, p<.01$)

<Table 9>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III (for 'Risk-acceptability')

Item	Step1			Step2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035	0.604	0.273	0.035	0.671	0.251
Age	-0.244*	-2.075	0.019	-0.266**	-2.398	0.008
Education	-0.081	-1.020	0.154	-0.030	-0.403	0.343
Marital status 2)	0.048	0.482	0.315	0.082	0.887	0.188
Salary/Month	0.108	1.796	0.036	0.086	1.552	0.061
Job Experience 3)	0.048	0.635	0.263	0.063	0.897	0.185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157*	1.746	0.041	0.102	1.221	0.111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62	-1.034	0.151	-0.076	-1.382	0.084
Mentor/Network support6)	0.100	1.630	0.052	0.057	1.006	0.157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048	0.798	0.213	0.023	0.408	0.341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052	0.635	0.263	0.119	1.565	0.059
Last Major Studied in9)	0.017	0.262	0.397	0.059	0.989	0.162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S				0.185**	2.877	0.002
FS				0.042	0.659	0.255
MS				0.244**	3.576	0.000
ΔR^2				.158**	F(3, 315)=21.452, p=.000	
R ²	.070*	F(12, 318)=2.007, p=.023		.228**	F(15, 315)=6.205, p=.000	

* p<.05, ** p<.01

<Table 10>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IV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

Item	Step1			Step2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128**	2.379	0.009	0.087*	1.941	0.026
Age	-0.045	-0.408	0.341	0.073	0.785	0.216
Education	-0.069	-0.915	0.180	-0.061	-0.979	0.164
Marital status 2)	0.030	0.315	0.376	0.013	0.165	0.434
Salary/Month	-0.064	-1.132	0.129	-0.103*	-2.169	0.015
Job Experience 3)	0.053	0.748	0.227	0.030	0.509	0.305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265**	3.124	0.001	0.160*	2.250	0.012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57	-1.014	0.155	-0.011	-0.225	0.411
Mentor/Network support6)	-0.042	-0.733	0.232	-0.063*	-1.302	0.027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152**	2.662	0.004	0.086*	1.785	0.037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050	0.653	0.257	0.006	0.086	0.466
Last Major Studied in9)	-0.203**	-3.330	0.000	-0.207**	-3.996	0.000
Entrepreneurship						
IV				0.144*	2.157	0.016
PA				0.231**	3.577	0.000
RA				0.237**	4.050	0.000
ΔR^2				.260**	F(3, 315)=48.455, p=.000	
R ²	.178**	F(12, 318)=5.723, p=.000		.437**	F(15, 315)=16.319, p=.000	

* p<.05, ** p<.01

만이 위험감수성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기업가정신 변수들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Table 10>의 단계적 회귀분석은 1단계로 12개 통제 변수들을 창업의지에 회귀하였으며, 이는 .01의 유의 수준에서 창업의지 변이의 17.8%를 설명하고 있다. 2단계로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창업의지에 추가로 회귀하였으며, 이는 .01의 유의 수준에서 창업의지 변이의 26.0%를 설명하고 있다. 혁신성($\beta=.144, p<.05$), 진취성($\beta=.231, p<.01$), 위험감수성($\beta=.237, p<.01$)의 세 변수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하면 “가설1: 창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중 “1-2 : 자금지원은 혁신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과 “3-2 : 자금지원은 위험감수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가설 즉, 1-1, 1-3, 2-1, 2-2, 2-3, 3-1, 3-3은 채택되었다.

또한, “가설2: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모든 가설 즉, 4-1, 4-2, 4-3은 채택되었다.

한편, 정부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추가로 분석하여 <Table 11>에서 <Table 13>까지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정책이 기업가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한 <Table 7>에서 <Table 9>까지의 2단계 분석 결과에 이어, 3단계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 조절변수를 추가로 회귀하고, 4단계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과 정부지원정책의 세 개 변수들 각각의 곱인 상호작용 항들을 추가로 회귀하였다.

조절효과 검정 시 문제는 창업지원정책과 사업실패부

<Table 11>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V (for 'Innovativeness')

Item	Step3			Step4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031	0.701	0.242	0.036	0.772	0.225
Age	-0.008	-0.088	0.465	-0.012	-0.125	0.450
Education	0.028	0.441	0.329	0.028	0.443	0.329
Marital status 2)	0.071	0.896	0.185	0.075	0.922	0.178
Salary/Month	0.011	0.237	0.406	0.014	0.283	0.389
Job Experience 3)	0.056	0.937	0.175	0.055	0.901	0.184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039	0.546	0.292	0.040	0.537	0.296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63	-1.335	0.091	-0.060	-1.259	0.104
Mentor/Network support6)	-0.035	-0.730	0.233	-0.034	-0.687	0.246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046	0.958	0.169	0.040	0.815	0.208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186**	2.855	0.002	0.189**	2.871	0.002
Last Major Studied in9)	0.169**	3.305	0.000	0.169**	3.268	0.000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S	0.185**	3.337	0.000	0.182**	3.178	0.001
FS	0.056	1.005	0.158	0.058	1.013	0.156
MS	0.107*	1.831	0.039	0.103*	1.704	0.044
Moderator Variable						
BFB	-0.025	-0.572	0.284	-0.028	-0.623	0.267
SE	0.419**	9.014	0.000	0.422**	8.901	0.000
Interaction effect						
BFB*ES				0.015	0.232	0.408
BFB*FS				-0.005	-0.084	0.466
BFB*MS				-0.007	-0.110	0.456
SE*ES				-0.050	-0.753	0.226
SE*FS				-0.014	-0.224	0.411
SE*MS				0.077	1.285	0.100
ΔR2	.147**	F(2, 313)=41.179, p=0.000		.003	F(6, 307)=0.307, p=.935	
R2	.441**	F(17, 313)=14.542, p=0.000		.445	F(23, 307)=10.684, p=0.000	

* p<.05, ** p<.01

담감 및 자기효능감 및 이들 간의 곱으로 만들어지는 상호작용 항들끼리 심각한 수준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accard, Turrisi & Wan(1990)의 이론에 따라 회귀방정식에 들어가는 모든 변수들을 평균값이 0, 표준편차가 1이 되도록 표준화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실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여부의 확인을 위해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연구가설 상의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11>의 정부지원정책과 혁신성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변수인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회귀한 3단계를 보면, .01의 유의수준에서 이들 두 변수가 혁신성 변이를 14.7% 추가설명하고 있다.

4단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과 정부지원정책 3개 변수들 간의 곱인 6개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추

가 회귀한 결과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정부지원정책과 혁신성 간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Table 12>의 정부지원정책과 진취성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변수인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회귀한 3단계를 보면, .01의 유의수준에서 이들 두 변수가 혁신성 변이를 16.1% 추가설명하고 있다.

4단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과 정부지원정책 3개 변수들 간의 곱인 6개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추가 회귀한 결과 상호작용항(자기효능감*교육지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정부지원정책과 진취성 간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Table 13>의 정부지원정책과 위험감수성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변수인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회귀한 3단계에서, .01의 유의수준에서 이들 두 변

<Table 12>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VI (for 'Pro-activeness')

Item	Step3			Step4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074	1.631	0.052	0.081*	1.753	0.040
Age	-0.164*	-1.709	0.044	-0.154	-1.575	0.058
Education	0.068	1.077	0.141	0.062	0.973	0.165
Marital status 2)	0.007	0.084	0.467	-0.006	-0.077	0.469
Salary/Month	-0.007	-0.150	0.440	0.001	0.012	0.495
Job Experience 3)	0.063	1.044	0.148	0.059	0.977	0.164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071	0.976	0.165	0.079	1.058	0.145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54	-1.149	0.125	-0.054	-1.127	0.130
Mentor/Network support6)	-0.107*	-2.200	0.014	-0.102*	-2.067	0.020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133**	2.762	0.003	0.122**	2.465	0.007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094	1.440	0.075	0.093	1.406	0.080
Last Major Studied in9)	-0.034	-0.659	0.255	-0.034	-0.651	0.257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S	0.213**	3.821	0.000	0.213**	3.719	0.000
FS	0.061	1.092	0.137	0.054	0.933	0.176
MS	0.052	0.879	0.190	0.045	0.736	0.231
Moderator Variable						
BFB	0.113**	2.560	0.005	0.106**	2.377	0.009
SE	0.432**	9.226	0.000	0.436**	9.192	0.000
Interaction effect						
BFB*ES				-0.024	-0.372	0.355
BFB*FS				0.011	0.189	0.425
BFB*MS				0.026	0.421	0.337
SE*ES				-0.129*	-1.959	0.025
SE*FS				0.021	0.344	0.365
SE*MS				0.082	1.374	0.085
ΔR2	.161**, F(2, 313)=44.703, p=.000			.008, F(6, 307)=0.725, p=.630		
R2	.435**, F(17, 313)=14.160, p=.000			.443**, F(23,307)=10.600, p=.000		

* p<.05, ** p<.01

<Table 13>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VII (for 'Entrepreneurial Intention')

Item	Step3			Step4		
	Beta	t	p	Beta	t	p
Control Variables						
Gender 1)	0.001	0.023	0.491	0.005	0.107	0.457
Age	-0.119	-1.281	0.100	-0.140	-1.485	0.069
Education	-0.046	-0.758	0.224	-0.038	-0.615	0.269
Marital status 2)	0.051	0.656	0.256	0.056	0.709	0.239
Salary/Month	0.059	1.288	0.099	0.060	1.286	0.100
Job Experience 3)	0.074	1.275	0.101	0.067	1.150	0.125
Starting Business Career (Self)4)	-0.008	-0.112	0.455	0.010	0.136	0.446
Starting Business Career (Parents or Siblings)5)	-0.030	-0.654	0.257	-0.030	-0.649	0.258
Mentor/Network support6)	0.022	0.461	0.322	0.015	0.326	0.372
Education Background for Starting Business7)	0.014	0.297	0.383	0.019	0.405	0.342
Current Status for Starting Business8)	0.091	1.446	0.074	0.083	1.307	0.096
Last Major Studied in9)	0.088*	1.772	0.038	0.080	1.587	0.056
Entrepreneurial Supporting Policy						
ES	0.111	2.068	0.019	0.124*	2.239	0.013
FS	0.022	0.415	0.339	0.022	0.397	0.346
MS	0.152**	2.670	0.004	0.163**	2.779	0.003
Moderator Variable						
BFB	-0.104**	-2.447	0.007	-0.105**	-2.441	0.007
SE	0.525**	11.596	0.000	0.520**	11.329	0.000
Interaction effect						
BFB*ES				0.068	1.088	0.138
BFB*FS				-0.025	-0.440	0.330
BFB*MS				-0.033	-0.538	0.295
SE*ES				0.024	0.373	0.354
SE*FS				0.078	1.292	0.098
SE*MS				-0.047	-0.810	0.209
ΔR2	.243**	F(2, 313)=71.948, p=.000		.008	F(6, 307)=0.795, p=.575	
R2	.471**	F(17, 313)=16.406, p=.000		.479**	F(23, 307)=12.286, p=.000	

* p<.05, ** p<.01

수가 위험감수성 변이를 24.3% 추가설명하고 있다.

4단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과 정부지원 정책 3개 변수들 간의 곱인 6개의 상호작용항을 각각 추가 회귀한 결과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정부지원 정책과 위험감수성 간 관계를 조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가설3: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모든 가설 즉, 5-1, 5-2, 5-3, 6-1, 6-2, 6-3, 7-1, 7-2, 7-3은 기각되었으며, “가설4: 자기효능감은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중 “9-1: 자기효능감은 교육지원과 진취성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만 유의확률 0.05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나머지 모든 가설 즉, 8-1, 8-2, 8-3, 9-2, 9-3, 10-1, 10-2, 10-3은 기각되었다.

4.3 연구결과의 요약 및 논의

먼저, “가설 1: 창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 창업지원정책 중 교육지원정책과 마케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금지원정책은 진취성에만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융복합산업기업 창업준비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마케팅지원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창업자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금지원은 창업자역량 중 진취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자금지원은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는 영향을 주나 혁신이나 위험감수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2: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모두 채택되었다. 여기서, 기업가정신의 조

작적 정의는 기업가역량이므로 기업가역량인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을 높일수록 창업을 하려는 의지는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설3: 사업실패부담감은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4: 자기효능감은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사이에 조절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해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융복합 산업기업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해당하는 창업실패부담감과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신감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의 사이의 영향력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먼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으로 “창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 대한 가설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융복합산업 기업 창업시 교육지원이나 마케팅지원이 기업가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자금지원보다 과급효과가 크다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만, 이강석(2015)은 진취성이 미래지향적인 성향으로 경쟁자들의 반응보다 빨리 시장변화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속성이다라고 하였듯이 진취성에 영향을 주는 자금지원은 실질적인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37].

둘째, 창업준비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가 가설로 채택된 것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험감수성, 적극성과 비전 및 역량의 특성이 높으면 창업의지가 대체적으로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38]. 융복합산업분야에서 창업준비를 위해 기업가역량인 혁신적인 가치창조활동과 남들보다 앞서가는 도전활동과 위험을 감내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후속 연구 시 사업실패부담감 및 자기효능감이 정부지원정책과 기업가정신 간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융복합산업기업 창업준비자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실질적인 창업자 능력에 조절효과가 없는 지를 보다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증연구에 앞서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단계별 구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여 연구자가 창업지원단계로서의 교육지원과 창업실행단계로서의 자금지원단계, 창업지속단계로서의 마케팅지원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창업지원정책의 단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서베이조사 방법으로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실증연구를 위해 모바일환경에서 자료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틀을 유지하였기에 종단적 연구를 통한 인과관계의 일반화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oon-tae Kim, “The Effects of Government Policy and Characteristics of Micro-enterprise on Business Strategy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3.
- [2] Francine Lafontaine & Kathryn Show, “Serial Entrepreneurship: Learning by Doing”, etranet.isnie.org, 2014.
- [3] Yong-tae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affecting factors of social enterprise entrepreneurial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2.
- [4] Timmons, J. A., “New Venture Creation”, Burr Ridge, 1994.
- [5] Gartner, W. B. & Vesper, K. H.,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 Succes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 pp. 179-187, 1994.
- [6] Ronstadt, R., The Educated Entrepreneurs :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Summer, pp.7-23, 1985.
- [7] Kil-seok Han, “The Systematization Plan of

- Entrepreneurship Education,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pp. 173-198, 2007.
- [8] Jong-hun Lee, “2015 Guide of Government Supporting Fund”, Hangseongb, pp. 14-25, 2015.
- [9] Young-soon Chung, “Determinants of the Financial Outcomes of Micro-enterprises”, Social Welfare Policy, Vol. 33, pp. 531-557, 2008.
- [10] Bong-jun Cheon, “The Effect Analysis of Entrepreneurial Supporting Fund from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M.A.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 [11] Bong-sam Park, “Success factors for establishment stages of small business”, M.A. dissertation, Busan University, 2007.
- [12] Miller, D.,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Vol. 29 No. 7, pp.770-791, 1983.
- [13] Morris, M.H. and P.S. Lewis,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Activity : Implications for Marketing”,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29(7), pp. 31-48, 1995
- [14]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An inquiry into profits, capital, credit, interest, and the business cycle”, Transaction publishers, Vol. 55, 1934.
- [15] P. Drucker,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 New York : Harper & Row, p.171, 1985.
- [16] Chun-huwa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store entrepreneur’s start up education and experience before start up to performance of stores”,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3.
- [17] Covin, J. G. and Slevin, D. P., “Juggling Entrepreneurial Style and Organizational Structure-How to Get Your Act Together”, Sloan Management Review, 31(2), 1990.
- [18] Des, G. G. & T. Lumpkin, “The Role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Simulating Effective Corporate Entrepreneurship”,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Vol. 19 No. 1, pp. 147-156, 2005.
- [19] Blanchflower, G. G., “Self-employment: more may not be better”, NBER working paper No. 10286, 2004.
- [20] Baik-jung Yo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d student”,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1.
- [21] Dae-youl Jun, “A study of the Effect of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System for Venture Business on Entrepreneurship & Technological Innovation”, Ph.D. dissertation, Soonsil University, 2011.
- [22] Crant, J. M.,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34 No. 3, pp. 42-49, 1996.
- [23] Krueger, N. F. & M. D. Reilly & A. L.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 15 No. 5-6, pp. 411-432, 2000.
- [24] Park Si-Sa; Kang Sung-Il,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 31 No. 2, pp. 187-204, 2007.
- [25] Kyu-ho Cho,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Vol8 No. 4, 2013.
- [26] Krueger, N., “Growing up entrepreneurial” Proceeding of the Academy of Management, Atlanta, GA, 1993.
- [27] Young-uk Kang, “A Stud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of Potential Small Business Entrepreneur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mall Business Startup and Self-efficacy”,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3.
- [28] Bandura,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pp. 122-125, 1986.
- [29] Su-yeon Hwang,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on Self-Efficacy : focused on

- small business in Incheon province”, M.A.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2007.
- [30] Ensley, M.D., J.W. Carland & J.C. Carland, “Investigating the existence of the lead entrepreneur”,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October, pp. 32-45, 2000.
- [31] Jeong-jong Shik, “The Effects of Preparations by Small Business Operators on the Success Possibility of Starting up the Business”, M.A.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2.
- [32] Soon-young Lim, “The Predictability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mprovement by Self-efficacy and Teaching Presence”, M.A.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33] Redding, S. G., “The Impact of Colonialism on the Formation of an Entrepreneurial Society in Hong Kong”, 1993.
- [34] Sang-hun Oh,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Start-up Environments on Young Adults and Seniors’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ing the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3.
- [35] Chang-Sso Sung,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Senior Entrepreneurship”,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1.
- [36] Jin-Hyuk Ryu, Sun-Bae Kim, “Effects of Knowledge-based Service Organization CEO’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Learning Organization Building Factors on Innovative Behavior in the Age of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4, pp. 147-161, 2015.
- [37] Kang-Seok Lee, Hae-Sool Yang, “Effects of Learning Organization Building Activities in Convergence Service Companies on Organization Citizenship Behavior - Consider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 Support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11, pp. 71-84, 2015.
- [38] Hoon Kim, Kyung-Hye Park, “The impact of collaboration process and capabilit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in convergence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5, pp. 151-158, 2015.
- [39] Sang-Ho Weon, Hae-Sool Yang, “A Study on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and Policy Direction of ICT-based Convergency Compan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4, pp. 39-50, 2015.
- [40] Mi-Ja Lee, Hae-Sool Yang, “Study on Influence of Market Merchant College Education in Convergence Era to Educ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10, pp. 209-218, 2015.
- [41] Brandon Walcutt, “A Convergent Study of Motivations, Success Factors and Issues of Foreign Entrepreneurs in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7, pp. 125-136, 2015.
- [42] Bong-Gyu Park, “A Convergence Study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Devotion and Team Performance - Moderating Effects of Authenticity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7, pp. 117-124, 2015.
- [43] Eun-Young Park, Dong-Gi Kwag, “The Study on the Market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for Convergence Indust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99-106, 2015.
- [44] Hyeon Young Kim, Myung-Seong Yim, “A Study on the Effect of Convergence Career Management Systems on Job Engagement and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23-31, 2015.
- [45] Min-Seok Song, “Convergence Models of Evaluation System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115-122, 2015.

권 명 규(Kwon, Myung Kyu)



- 1985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학사)
- 1992년 2월 :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석사)
- 1989년 1월 ~ 1997년 8월 : 한국데이터통신(주)
- 1997년 9월 ~ 2007년 12월 : 하나로텔레콤
- 2008년 1월 ~ 현재 : SK Broadband
- 관심분야 : Digital content, ICT, Digital convergence
- E-Mail : mgkwon@sk.com

양 해 술(Yang, Hae Sool)



- 1975년 2월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 197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처리학과 졸업(석사)
- 1991년 3월 : 日本 오사카대학 정보공학과 SW공학 전공(공학박사)
- 2006년 2월 : Kazakhstan 유러시안경제대학(명예경영학박사)
- 1975년 5월 ~ 1979년 6월 : 중경단 전산실 시스템 분석장교
- 1980년 3월 ~ 1995년 5월 : 강원대 전자계산학과 교수
- 1986년 12월 ~ 1987년 12월 : 日本오사카대학 객원연구원
- 1995년 6월 ~ 2002년 12월 : 한국 Software 품질연구소장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원장
- 2012년 11월 : 대통령표창(SW산업발전유공) 수상
- 1999년 11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SW공학(특히, SW품질보증과 품질평가, 품질관리 및 컨설팅, SI, SW프로젝트관리, 품질경영)
- E-Mail : hsyang@hoseo.edu